

#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 A Study on Percep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Court Libraries

곽 승 진 (Seung-Jin Kwak)\*\* ,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인 호 (Inho Chang)\*\*\*\* , 김 정 택 (Jeong-Taek Kim)\*\*\*\*\*  
신 영 지 (Youngji Shin)\*\*\*\*\*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요약:**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는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 순으로 나타난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 전문도서관, 법률관련 전문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establishing the court library as the best legal library in Korea responsible fo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arget. As a result, first,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general users, in the case of collection types, preference in the order of books, electronic materials, and non-books should be considere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lan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eflecting the high preference for books. In addition, in the non-books section, the preference for non-book materials in the form of video rather than audio is much higher, and in the case of language, domestic books should be collected mainly. Second,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experts, the satisfaction of experts is generally low, so it seems that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is. As for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preference was shown in the order of electronic materials, books, and non-books. There is a need. The future collection dir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eference shown in the order of procedural law, specialized field, basic substantive law, and legal series. Also, when collecting the same book, electronic form of legal data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pri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llections mainly from domestic books, and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collection should be expanded to prioritize English and American books, Japanese books, and German books.

**KEYWORDS:** Court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llection Development, Specialized Library, Legal-related Specialized Services

- \* 이 논문은 2021년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대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gmail.com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배재대학교 학술정보팀 팀장(kjt@pcu.ac.kr / ISNI 0000 0004 6844 3334)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gee910125@gmail.com / ISNI 0000 0004 7936 7250)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1년 8월 24일 • 최초심사: 2021년 9월 3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1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1-20,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1>

## I. 서론

법원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편찬, 발간하며,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정보의 확산 및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서비스 대상을 내부 이용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이용자로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출현,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법원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 열람·대출 위주의 서비스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법원에서 생성된 각종 재판자료와 법률 관련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판례, 논문 등의 외국어 번역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국가법률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장서 규모와 자료수집 관련 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사 이전 및 법마루 개관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법률분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법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법조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특별법 분야의 출현 및 영미·독일·일본 외 다양한 언어권의 법령과 판례에 대한 참고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법원도서관의 재판사무의 지원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법원도서관은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의 이용 증가와 유튜브 등의 영상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 단계 법원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이용계층의 확대(대국민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차별화된 장서 전략 필요,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의 확대,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국내외 법률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는 장서개발과 관련한 기본원칙, 수집전략, 실천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를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장서개발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장서개발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관종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크게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다수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도서관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에 관한 연구로 장혜란 외(2009)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장서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기본모형은 크게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협동연계장서 구축, 장서 평가,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등 네 가지의 서브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모형별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장덕현, 이연옥, 윤희윤(2014)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관련한 연구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중장기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외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 특수범주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윤희윤과 장덕현(2018)은 국가도서관 정책정보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승진 외(2021)는 세종시립도서관의 장서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시 내 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도청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서 운영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서구성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는데, 경기도청(2015), 서울특별시(2019) 등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법적 책임 및 지위적 역할에 부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장서개발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고양시(2015)는 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서개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장덕현(2017)은 10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장서 구축 사례를 검토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 장서구성 기본계획 수립, 개관장서 규모 도출, 향토자료 구축 등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에는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관련 연구로 윤희윤, 김종애, 오선경(2020)은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국가 및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다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도서관의 경우, 각 도서관의 역할과 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법원도서관도 법률분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법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법원도서관 비전 및 역할과 더불어 법원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이용현황 및 장서 관련 만족도와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앞서 법원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장서개발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 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법원도서관의 경우, 법마루 1층 열람실은 일반 국민을 위한 개방형 법률문화공간으로 내외부 이용자에게 개방되고, 2층과 3층은 주로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을 위한 공간으로 내부 및 연구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에 설문조사 시 일반 국민 이용자와 전문가로 설문 대상을 구분하여 이용현황 및 만족도, 요구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 법원 내부 시스템과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내 열린마당-설문조사 메뉴, SNS 홍보 등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은 법마루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일반 이용자 102명, 전문가 1,034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여 총 1,136명의 이용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표 1〉 설문조사 진행절차

구분	방법
설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도서관 내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li> <li>- (일반 이용자) 법마루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 국민</li> <li>- (전문가)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 내부 및 연구자</li> </ul>
설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6일일까지 약 1달간 진행</li> </ul>
설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함</li> <li>- (일반 이용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SNS, 법마루 열람실 현장 배포</li> <li>- (전문가) 법원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배포 실시</li> </ul>
응답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136명이 참여 (일반 이용자 102명, 전문가 1,034명)</li> </ul>

##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개발을 위해 국회도서관(2018), 경기도청(2014), 국립세종도서관(2017), 서울시(2019) 등의 장서개발정책 수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 수립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은 법원도서관의 현황 및 장서 구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일반사항,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 법원도서관 장서 구성 및 이용 만족도, 정보요구, 기타의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 세부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법원도서관 이용자 요구 조사 설문 구성도

구분	설문내용	전문가	일반 이용자
일반사항	성별	○	○
	연령	○	○
	직업		○
	거주지		○
	근무지 유형	○	
	내부 근무지	○	
	직렬 (내부 근무지)	○	
	외부 근무지	○	
	직업 (외부 근무지)	○	
	경력	○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	법원도서관 이용 경험 유무	○	○
	법원도서관 이용 빈도 (직접 방문)	○	○
	법원도서관 이용 빈도 (홈페이지)	○	○
	법원도서관 방문 목적	○	○
	주이용 법률 관련 정보원	○	○

구분	설문내용	전문가	일반 이용자
장서 구성 및 이용 만족도 부문	장서(도서 및 자료) 이용에 전반적 만족도	○	○
	장서(도서 및 자료) 구성에 전반적 만족도	○	○
	각 장서에 대한 만족도	○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서에 대한 중요도	○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서에 대한 만족도	○	○
정보요구 부문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	○
	선호하는 세부 정보원 유형	○	○
	선호하는 법률 주제분야	○	○
	선호하는 법률정보의 매체 (인쇄 또는 전자)	○	○
	희망하는 비도서자료 형태의 법률정보 (비디오 또는 오디오)	○	○
기타	희망하는 언어권의 법률정보	○	○
	기타 법원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의견	○	○

#### IV. 연구결과

본 설문조사에는 일반 이용자 102명, 전문가 1,034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각 이용자별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2.9%, 여성이 47.1%로 성비는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50대가 29.4%, 40대가 20.6%, 30대 17.6%, 20대 이하 16.7%, 60대 이상 15.7%로 다양한 연령층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거주지의 경우, 고양시가 51.0%, 수도권이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타 지역은 7.8%로 부산, 제주도, 충청권 등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은 전문직 22.5%, 대학원생 18.6%, 공무원 17.6%, 기타 14.7%, 회사원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72.37%, 여성이 27.7%로 성비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40대와 50대가 각각 33.9%, 33.6%로, 30대 26.0%, 20대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의 경우, 우선 내부 근무지는 지방법원 51.5%, 지원 21.0%, 고등법원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근무지를 선택한 전문가의 직렬은 법원(등기)사무 62.0%, 판사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문 응답자들의 근무지는 로펌 68.8%, 기타 16.4%, 법학전문대학원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변호사 80.6%, 로스쿨 및 법대 학생 6.8%, 로스쿨 및 법대 교수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 18.8%, 10년 이상~20년 미만 15.2%, 1년 이상~5년 미만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 법원도서관 이용현황

### 가. 법원도서관 이용 경험

법원도서관 이용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일반 이용자의 경우 법마루(고양시 일산 소재)만 이용한 비율이 5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모두 이용한 경험 없음이 16.7%,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모두 이용한 경험 있음이 16.7%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65.9%로 나타났으며, 대법원열람실 19.7%, 법마루 7.3%,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모두 이용한 경험 있음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법원도서관 이용 경험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N	%	N	%
법마루(고양시 일산 소재)만 이용	61	59.8	75	7.3
대법원열람실(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만 이용	7	6.9	204	19.7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모두 이용한 경험 있음	17	16.7	74	7.2
모두 이용한 경험 없음	17	16.7	681	65.9
계	102	100.0	1,034	0.1

### 나. 법원도서관 이용 빈도

법원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직접방문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 1~2회 정도 19.6%, 주 1~2회 정도 17.6%, 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정도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의 이용 빈도 역시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32.4%, 월 1~2회 정도 32.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 1~2회 정도 14.7%, 주 3회 이상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한 이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71.1%, 연 1~2회 정도 15.9%, 월 1~2회 정도 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한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법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경우,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41.1%, 월 1~2회 정도 21.4%, 연 1~2회 정도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상에서의 이용 형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 등의 접근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하고 많은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희망하고 있다.

〈표 4〉 법원도서관 이용 빈도

구분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N	%	N	%
직접방문	거의 이용하지 않음	28	27.5	735	71.1
	연 1~2회 정도	20	19.6	164	15.9
	월 1~2회 정도	16	15.7	92	8.9
	주 1~2회 정도	18	17.6	28	2.7
	주 3회 이상	16	15.7	8	0.8
	매일	4	3.9	7	0.7
	계	102	100.0	1,034	100.0
홈페이지	거의 이용하지 않음	33	32.4	425	41.1
	연 1~2회 정도	15	14.7	191	18.5
	월 1~2회 정도	33	32.4	221	21.4
	주 1~2회 정도	8	7.8	85	8.2
	주 3회 이상	10	9.8	67	6.5
	매일	3	2.9	45	4.4
	계	102	100.0	1,034	100.0

다. 법원도서관 이용의 주요 목적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일반 이용자의 경우, 다양한 전문적인 법률 자료 이용(24.3%), 최신 법률정보 이용(17.3%), 휴식·소통 공간으로 이용(16.3%) 등의 이유로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타항목에서 자기계발 및 학습 공간, 독서 활동(인문학, 사회학, 철학) 등의 이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다양한 전문적인 법률 자료 이용(37.4%), 최신 법률정보 이용(22.9%),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이용(11.0%), 정보서비스 이용(10.5%) 등을 위해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경우 휴식·소통 공간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의 법원도서관 주요 이용 목적의 차이는 공간적 활용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표 5〉 법원도서관 이용의 주요 목적(복수응답, 최대 3개)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N	%	N	%
다양한 전문적인 법률 자료의 이용	49	24.3	625	37.4
사서를 통해 필요 정보를 지원받기 위해서	16	7.9	52	3.1
최신 법률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35	17.3	382	22.9
정보서비스 이용	25	12.4	176	10.5
전자정보 이용	15	7.4	118	7.1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이용	14	6.9	184	11.0
휴식·소통 공간으로 이용	33	16.3	80	4.8
기타	15	7.4	54	3.2



라. 주이용 법률 관련 정보원

주로 이용하는 법률 관련 정보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동일하게 법률 관련 정보원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 등의 순으로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 모두 법률 관련 정보원을 얻고자 할 때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보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법원도서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주이용 법률 관련 정보원(복수응답, 최대 3개)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N	%	N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전자도서관, 열린법률지식백과 등을 통칭)	66	39.8	722	43.5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12	7.2	107	6.5
외국 법률 도서관 홈페이지	2	1.2	13	0.8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 등	25	15.1	241	14.5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	51	30.7	439	26.5
법고을LX	8	4.8	97	5.9
기타	2	1.2	39	2.4

2. 장서 구성 및 이용 만족도

가. 법원도서관 장서 구성 및 이용의 만족도

현재 법원도서관 장서 구성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평균 3.81로, 전문가는 3.25로 나타나 일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장서의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기준이 더 높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법원도서관 장서 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평균 3.70로, 전문가는 3.24로 나타나 일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현재 법원도서관 장서 구성 및 이용의 만족도

구분	집단	N	M	SD	t	p
장서 이용	이용자	102	3.81	0.767	7.095	0.000
	전문가	1,034	3.25	0.812		
장서 구성	이용자	102	3.70	0.781	5.665	0.000
	전문가	1,034	3.24	0.782		

나. 장서별 만족도

현재 법원도서관 장서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일반 이용자의 경우 판례집(3.86), 법령집(3.83), 법률주석서(3.80)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학위논문(3.49), 교과서(3.66), 법률 잡지(3.72) 등에 대한 장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가는 판례집(3.49), 법률주석서(3.45), 법령집(3.43), 교과서(3.32), 법률 잡지(3.26), 학위논문(3.21)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집단 모두 판례집, 법률주석서, 법령집이 상위에 위치하고 교과서, 법률잡지, 학위논문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만족도가 낮은 장서유형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장서 수집에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반 이용자와 달리 모든 항목에서 평균 3.5 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나, 향후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장서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현재 법원도서관 장서별 이용의 만족도

구분	집단	N	M	SD	t	p
법령집	이용자	102	3.83	0.772	5.052	0.000
	전문가	1034	3.43	0.755		
판례집	이용자	102	3.86	0.718	4.624	0.000
	전문가	1034	3.49	0.784		
법률주석서	이용자	102	3.80	0.821	4.295	0.000
	전문가	1034	3.45	0.790		
교과서	이용자	102	3.66	0.802	4.188	0.000
	전문가	1034	3.32	0.767		
법률잡지	이용자	102	3.72	0.750	5.804	0.000
	전문가	1034	3.26	0.750		
학위논문	이용자	102	3.49	0.841	3.323	0.001
	전문가	1034	3.21	0.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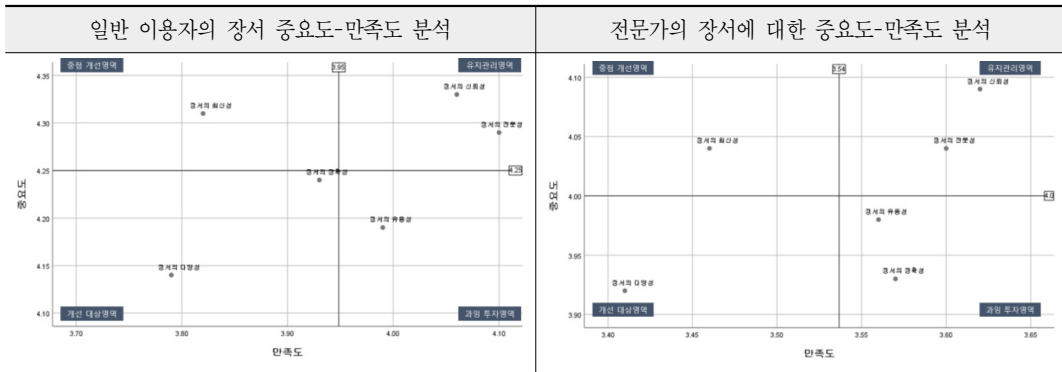
다. 장서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장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 분석한 결과, 먼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장서의 신뢰성(4.33), 장서의 최신성(4.31), 장서의 전문성(4.29), 장서의 정확성(4.24), 장서의 유용성(4.19), 장서의 다양성(4.14)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서의 전문성(4.10), 장서의 신뢰성(4.06), 장서의 유용성(3.99), 장서의 정확성(3.93) 등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들의 장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3.95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평균이 미치지 못하는 세 가지 요소로 장서의 다양성과 장서의 최신성, 장서의 정확성을 볼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장서의 신뢰성(4.09), 장서의 전문성(4.04), 장서의 최신성(4.04), 장서의 유용성(3.98), 장서의 정확성(3.93), 장서의 다양성(3.92)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만족도의 경우 장서의 신뢰성(3.62), 장서의 전문성(3.60), 장서의 정확성(3.57), 장서의 유용성(3.56), 장서의 최신성(3.46), 장서의 다양성(3.41) 등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장서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M	Std	M	Std
중요도	장서의 정확성	4.24	0.706	3.93	0.767
	장서의 최신성	4.31	0.731	4.04	0.800
	장서의 신뢰성	4.33	0.694	4.09	0.798
	장서의 유용성	4.19	0.671	3.98	0.774
	장서의 전문성	4.29	0.698	4.04	0.769
	장서의 다양성	4.14	0.690	3.92	0.779
만족도	장서의 정확성	3.93	0.693	3.57	0.704
	장서의 최신성	3.82	0.801	3.46	0.778
	장서의 신뢰성	4.06	0.701	3.62	0.722
	장서의 유용성	3.99	0.738	3.56	0.729
	장서의 전문성	4.10	0.682	3.60	0.735
	장서의 다양성	3.79	0.860	3.41	0.751



이를 기반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 이용자의 경우, '장서의 최신성'이 중점 개선영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장서의 신뢰성과 장서의 전문성은 현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서의 유용성은 현재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과잉 투자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장서의 다양성과 정확성은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경우, 이용자와 동일하게 장서의 최신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서의 신뢰성과 장서의 전문성은 유지관리영역으로 현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서의 유용성과 정확성은 현재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과잉 투자영역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게 타 항목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장서의 다양성은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장서의 정확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장서의 정확성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보요구 부문

#### 가.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선호하는 정보원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도서(4.34), 전자자료(3.83), 비도서(3.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전자자료(3.98), 도서(3.90), 비도서(3.41)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비도서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0〉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M	Std	M	Std
도서	4.34	0.637	3.90	0.730
비도서	3.58	0.895	3.41	0.774
전자자료	3.83	0.902	3.98	0.855

#### 나. 세부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

세부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도서] 단행본(4.21), [도서] 연속간행물(3.85), [전자자료] 전자책(3.60), [도서] 학위논문(3.59)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전자자료] 전자책(3.76), [도서] 단행본(3.76),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3.59), [전자자료] 전자저널(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도서] 단행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과 같은 전자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등의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은 범마루를 방문하여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향하고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서 형태의 정보원과 [전자자료] 전자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정책개발 수립 시 단행본과 전자자료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장서 유형에 대한 수립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세부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

구분		집단	N	M	SD	t	p
도서	단행본	이용자	102	4.21	0.871	4.976	0.000
		전문가	1,034	3.76	0.799		
	연속간행물	이용자	102	3.85	0.916	5.140	0.000
		전문가	1,034	3.37	0.844		
	학위논문	이용자	102	3.59	0.989	2.285	0.023
		전문가	1,034	3.38	0.871		
비도서	오디오	이용자	102	3.07	0.926	2.617	0.010
		전문가	1,034	2.82	0.925		
	비디오	이용자	102	3.25	0.906	3.794	0.000
		전문가	1,034	2.89	0.951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이용자	102	3.29	0.929	-3.037	0.003
		전문가	1,034	3.59	0.932		

p\* < 0.05, p\*\* < 0.01, p\*\*\* < 0.001

다. 선호하는 주제별 장서

선호하는 주제별 장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기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 일치된 주제분야 선호도를 기반으로 법률자료를 향후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선호하는 법률 주제분야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M	Std	M	Std
법률총류 (법학개론, 법철학 등)	3.30	0.983	3.17	0.924
기본 실체법류 (헌법, 민법, 형법 등)	3.85	0.927	3.87	0.808
기본 절차법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3.97	0.928	3.95	0.786
전문분야 (조세, 지식재산, 언론, 노동, 환경, 건설, 의료 등)	3.97	0.969	3.87	0.882

라. 희망하는 법률정보의 인쇄 또는 전자

희망하는 법률정보의 인쇄 또는 전자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전자] 판례집(4.07), [인쇄] 판례집(3.88), [전자] 법령집(3.87), [전자] 법률주석서(3.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전자] 판례집(4.14), [전자] 법률주석서(4.14), [전자] 교과서(4.05), [전자] 법

령집(3.91), [전자] 법률 잡지(3.89), [전자] 학위논문(3.89)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6개의 상위 매체는 모두 전자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법률정보에 대한 희망 매체도 모두 전자 형태로 희망하고 있다.

〈표 13〉 희망하는 법률정보의 인쇄 또는 전자자료

구분	집단	N	M	SD	t	p	
법령집	인쇄	이용자	102	3.73	0.846	6.592	0.000
		전문가	1034	2.97	1.120		
	전자	이용자	102	3.87	0.941	-0.364	0.717
		전문가	1034	3.91	0.960		
판례집	인쇄	이용자	102	3.88	0.812	6.539	0.000
		전문가	1034	3.11	1.159		
	전자	이용자	102	4.07	0.870	-0.738	0.462
		전문가	1034	4.14	0.888		
법률 주석서	인쇄	이용자	102	3.75	0.826	3.549	0.000
		전문가	1034	3.35	1.117		
	전자	이용자	102	3.81	0.941	-3.360	0.001
		전문가	1034	4.14	0.885		
교과서	인쇄	이용자	102	3.79	0.905	2.377	0.018
		전문가	1034	3.54	1.039		
	전자	이용자	102	3.75	1.021	-3.194	0.001
		전문가	1034	4.05	0.904		
법률 잡지	인쇄	이용자	102	3.75	0.909	6.974	0.000
		전문가	1034	3.08	1.067		
	전자	이용자	102	3.77	1.004	-1.072	0.286
		전문가	1034	3.89	0.969		
학위논문	인쇄	이용자	102	3.56	0.950	5.707	0.000
		전문가	1034	2.99	1.103		
	전자	이용자	102	3.68	0.987	-2.133	0.035
		전문가	1034	3.89	0.974		

p\* < 0.05, p\*\* < 0.01, p\*\*\* < 0.001

마. 희망하는 비도서자료(비디오 또는 오디오) 법률정보

희망하는 비도서 자료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비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95), [비디오] 판례집(3.73), [오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72), [오디오] 판례집(3.58)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전문가는 [비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41), [오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20), [비디오] 판례집(3.15), [오디오] 판례집(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비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41)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디오보다 비디오 유형을 동일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희망하는 비도서자료(비디오 또는 오디오) 법률정보

구분	집단	N	M	SD	t	p	
판례집	비디오	이용자	102	3.73	0.977	5.599	0.000
		전문가	1034	3.15	1.039		
	오디오	이용자	102	3.58	0.959	4.633	0.000
		전문가	1034	3.11	1.031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	비디오	이용자	102	3.95	0.894	5.188	0.000
		전문가	1034	3.41	1.017		
	오디오	이용자	102	3.72	0.958	5.147	0.000
		전문가	1034	3.20	1.011		

p\* < 0.05, p\*\* < 0.01, p\*\*\* < 0.001

바. 희망 언어권의 법률정보

희망하는 언어권의 법률정보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이용자는 국내서(4.38)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영미서(3.69), 독일서(3.31), 일본서(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는 국내서(4.21), 영미서(3.30), 일본서(2.94), 독일서(2.85), 프랑스서(2.61), 중국·대만서(2.49), 스페인서(2.4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두 집단은 독일서와 일본서의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고, 국내서,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5〉 선호하는 법률 주제분야

항목	일반 이용자		전문가	
	M	Std	M	Std
국내서	4.38	0.676	4.21	0.765
일본서	3.21	1.037	2.94	1.070
중국서(대만서)	2.97	0.949	2.49	0.966
영미서	3.69	1.062	3.30	1.073
독일서	3.31	1.081	2.85	1.038
프랑스서	3.11	0.994	2.61	0.939
스페인서	2.91	0.902	2.47	0.911



그 외 일반 이용자의 선호 국가	그 외 전문가의 선호 국가
- 러시아(4) - 베트남서(1) - 이탈리아서(1)	- (요구도 上) 러시아서(22), 이탈리아어(15) - (요구도 中) 베트남서(6), - (요구도 下) 아랍어(2), 라틴어(1), 인도네시아서(2), 말레이시아서(1), 아프리카어(1), 네덜란드어(1), 몽골어(1), 남미(1), 멕시코(1), 북유럽(1), 오스트리아(1), 스위스(1), 스웨덴(1), 중동권(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조사 연구로, 장서개발정책과 관련한 요구도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 간에 요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용 목적과 희망 장서의 범위와 종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법원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기반의 장서개발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의 요구를 바탕으로 장서개발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의 경우 첫째, 일반 이용자들의 장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3.95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용자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점진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IPA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장서의 최신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체적인 장서 개선 방향으로 정보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만족도 낮게 나타난 학위논문, 교과서, 법률 잡지 등을 중심으로 장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선호도 측면에서 일반 이용자들은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의 순으로 선호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별로는 [도서] 단행본,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전자책, [도서] 학위논문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서 수집 및 개발 방향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률 분야 주제별 장서의 선호도에서는 기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매체별로는 [전자] 판례집, [인쇄] 판례집, [전자] 법령집, [전자] 법률주석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자들을 위한 법률 관련 장서는 기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등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인쇄] 교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 정보는 전자 형태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장서수집 및 개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도서 관련 정책의 경우,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비디오 판례집 보다 비디오 형태의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서의 언어 측면에서는 국내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향후 법마루 열람실 장서개발 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하되 영미서, 독일서, 일본서 등의 순으로 장서 수집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요구를 기반한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법원도서관 장서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법원도서관 장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장서 보완 방향으로는 IPA 분석 결과에 따라 장서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장서의 최신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전문가들의 장서별 만족도가 취약한 학위논문, 법률 잡지에 대한 장서 수집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판례집, 법률주석서, 법령집, 교과서, 법률 잡지, 학위논문 등의 장서들은 차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이용자에 따른 장서 만족도 및 요구도 차이

구분	일반 이용자		전문가	
장서구성 만족도	평균 3.81		평균 3.25	
장서 이용의 만족도	평균 3.70		평균 3.24	
장서별 만족도 (3순위까지)	1순위	판례집(3.86)	1순위	판례집(3.49)
	2순위	법령집(3.83)	2순위	법률주석서(3.45)
	3순위	법률주석서(3.80)	3순위	법령집(3.43)
장서 중요도	1순위	신뢰성(4.33)	1순위	신뢰성(4.09)
	2순위	최신성(4.31)	2순위	전문성(4.04)
	3순위	전문성(4.29)	3순위	최신성(4.04)
장서 만족도	1순위	전문성(4.10)	1순위	신뢰성(3.62)
	2순위	신뢰성(4.06)	2순위	전문성(3.60)
	3순위	유용성(3.99)	3순위	정확성(3.57)
선호하는 정보원 유형	1순위	도서(4.34)	1순위	전자자료(3.98)
	2순위	전자자료(3.83)	2순위	도서(3.90)
	3순위	비도서(3.58)	3순위	비도서(3.41)
세부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	1순위	[도서] 단행본(4.21)	1순위	[전자자료] 전자책(3.76)
	2순위	[도서] 연속간행물(3.85)	2순위	[도서] 단행본(3.76)
	3순위	[전자자료] 전자책(3.60)	3순위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3.59)
	4순위	[도서] 학위논문(3.59)	4순위	[전자자료] 전자저널(3.58)
선호하는 주제별 장서	<b>(동일하게)</b> 기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			
희망하는 법률정보의 인쇄 또는 전자	1순위	[전자] 판례집(4.07)	1순위	[전자] 판례집(4.14)
	2순위	[인쇄] 판례집(3.88)	2순위	[전자] 법률주석서(4.14)
	3순위	[전자] 법령집(3.87)	3순위	[전자] 교과서(4.05)
	4순위	[전자] 법률주석서(3.81)	4순위	[전자] 법령집(3.91)
희망하는 비도서자료 법률정보	1순위	[비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95)	1순위	[비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41)
	2순위	비디오 판례집(3.73)	2순위	[오디오]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3.20)
희망 언어권의 법률정보	1순위	국내서(4.38)	1순위	국내서(4.21)
	2순위	영미서(3.69)	2순위	영미서(3.30)
	3순위	독일서(3.31)	3순위	일본서(2.94)

셋째, 정보원 유형의 경우 크게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별로는 [전자자료] 전자책, [도서] 단행본, [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자료] 전자저널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제별 장서의

선호도는 일반 이용자들은 동일하게 기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으로 법률 주제 분야의 장서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매체별로는 [전자] 판례집, [전자] 법률주석서, [전자] 교과서, [전자] 법령집, [전자] 법률 잡지, [전자] 학위논문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6개의 상위 매체는 모두 전자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로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을 위한 공간으로 내부 및 연구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2층과 3층을 위한 장서개발 시, 본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으로 법률 주제 분야의 장서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동일 법률정보에 대한 희망 매체에서 모두 전자 형태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 보다 전자 형태의 법률정보를 선택 및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어 부분의 경우 국내서(4.21), 영미서(3.30), 일본서(2.94), 독일서(2.85), 프랑스서 (2.61), 중국·대만서(2.49), 스페인서(2.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를 위한 장서 개발 시에는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법원도서관만의 차별성 있는 장서 확충과 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서의 최신성과 차별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주이용 법률 관련 도서관은 소속 도서관(58.7%)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속 도서관과 차별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률 관련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도서관에서는 타 도서관들이 수집하기 힘든 다양한 장서 또는 자료 원문(예: 법관들이 작성한 논문, 각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작성된 논문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신성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법률도서의 경우, 도서 발간 일로부터 이용자 대출가능상태까지 최대 6개월,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료의 최신성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선정부터 구입, 등록, 배부까지의 업무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언

법원도서관은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 법률과 관련한 장서를 집중적 및 전략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식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려면 장서개발 및 보존 관리에 포괄성(comprehensiveness), 균형(balance), 안정성(steadiness), 합리성(reasonability), 민주성(impartiality)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이를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장서개발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장서 수집 시 해당 유형을 고려하여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향후 단행본을 중심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하며 이와 함께 연속간행물과 전자책에 대한 장서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비디오 관례집 보다 비디오 형태의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장서 수집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의 경우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의 순으로 법률 주제 분야의 장서를 선호하고 있어,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법률정보에 대한 희망 매체에서 모두 전자 형태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 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원도서관의 장서의 수집과 관리, 보존업무 등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곽승진, 오상희, 노영희, 박우정, 김정택 (2020). 세종시립도서관의 장서개발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59-283. <http://dx.doi.org/10.16881/jss.2021.01.32.1.259>
- 서은경 외 (2015). 고양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고양시: 고양시 도서관센터 도서관 정책팀.
- 윤희윤 외 (2019).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서울도서관.
- 윤희윤, 김종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051>
- 이지연 외 (2015).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
-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03-320.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303>

장덕현, 이연옥, 윤희윤 (201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79-203.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19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Durk Hyun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nding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303-320.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303>

Chang, Durk Hyun, Lee, Yeon Ok, & Yoon, Hee-Yoon (2014).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79-203.

Chang, Hye Rhan, Hong, Hyun-Jin, Noh, Younghee, & Oh, Euikyung (2009). Develop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193-21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193>

Kwak, Seung-Jin, Oh, Sanghee, Noh, Younghee, Kwak, Woojung, & Kim, Jeong-Taek (2020).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direction Sejong city library. Social Science Research, 32(1), 259-283. <http://dx.doi.org/10.16881/jss.2021.01.32.1.259>

Lee, Jee Yeon et al. (2015).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Operation Plan of Gyeonggi-do Representative Library. Suwon: Gyeonggi-do.

Seo, Eun-Gyoung et al. (2015). Goyang City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cademic Research Service Report. Goyang City: Goyang City Library Center Library Policy Team.

Yoon, Hee-Yoon et al.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eoul'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Seoul Library.

Yoon, Hee-Yoon, Kim, Jong-Ae, & Oh, Seon-Kyung (2020).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major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051>